

14TH GRADUATION WORK 2018

ABOUT

HWASUN UNJU TEMPLE





EDITOR'S LETTER

YEO SU GYEONG

'화순'하면 떠오르는 건 아마도 고인돌과 운주사일 것이다. 사찰이나 불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운주사는 재밌고 신비하고 흥미로운 절일 것이다. 하지만 화순에서 나고 자라온 나에게 운주사는 몇십 분만 차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절일 뿐이다. 심지어 가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관심해왔고 운주사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작업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라 '내가 운주사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미 운주사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색다르게 작업할 수 있을까?', '괜히 잘못 표현해서 불교에 대해 나쁘게 표현되면 어떡하지?' 등 물음표를 계속 던지면서 걱정이 앞서 작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았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걱정과 불안함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작업에 더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물론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운주사에 아는 정보가 없고 새하얀 도화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보 습득하기에 좋았다. 원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정보가 나에게는 새롭고 신기한 정보이기에 운주사 공부가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러다 '몇 달 전의 나처럼 운주사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움을 전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의 궁극적 목표는 이것이다. 이 매거진을 읽고 불교나 사찰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내가 처음에 느꼈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이 매거진 안에는 '운주사'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거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글이기보다는 운주사 정보를 이용하여 에디터의 주관적 시점에서 바라본 운주사가 담겨있다. 운주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매력, 운주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해보았다. 이 매거진을 읽어봄으로써 기존에 있는 자료들에서 느꼈던 매력에 더해 운주사의 새로운 매력을 찾았으면 좋겠다.

CONTENTS

03 에디터의 글

04 목차

06 운주사

10 기울어진 한반도

12 영원하지 않는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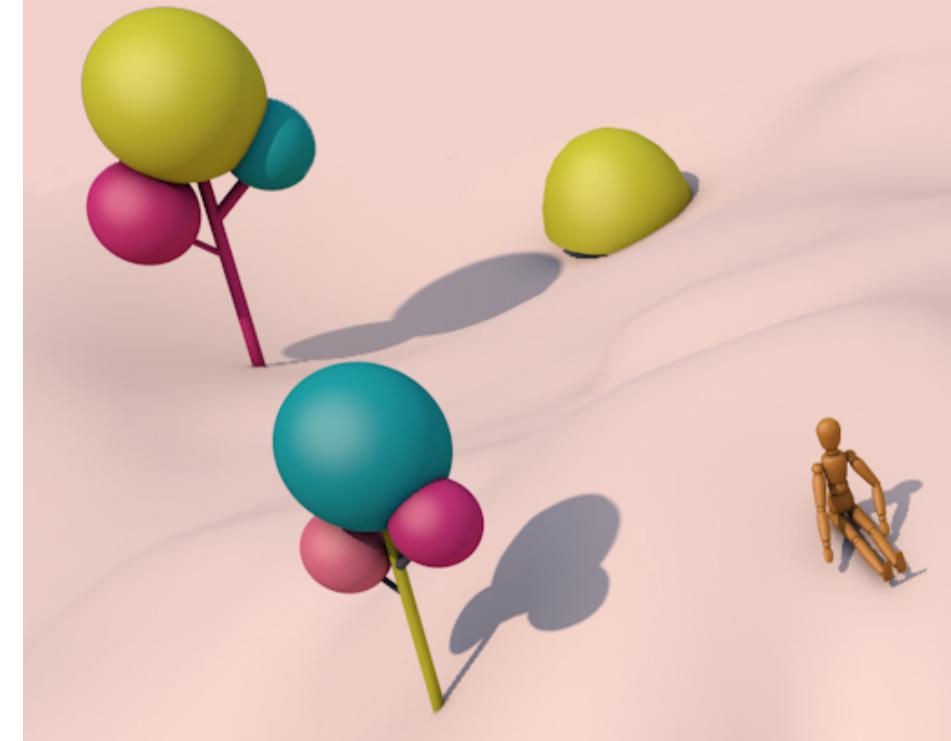
20 평범한 부처

26 부록

운주사

구름이 머무는 자리

06



기울어진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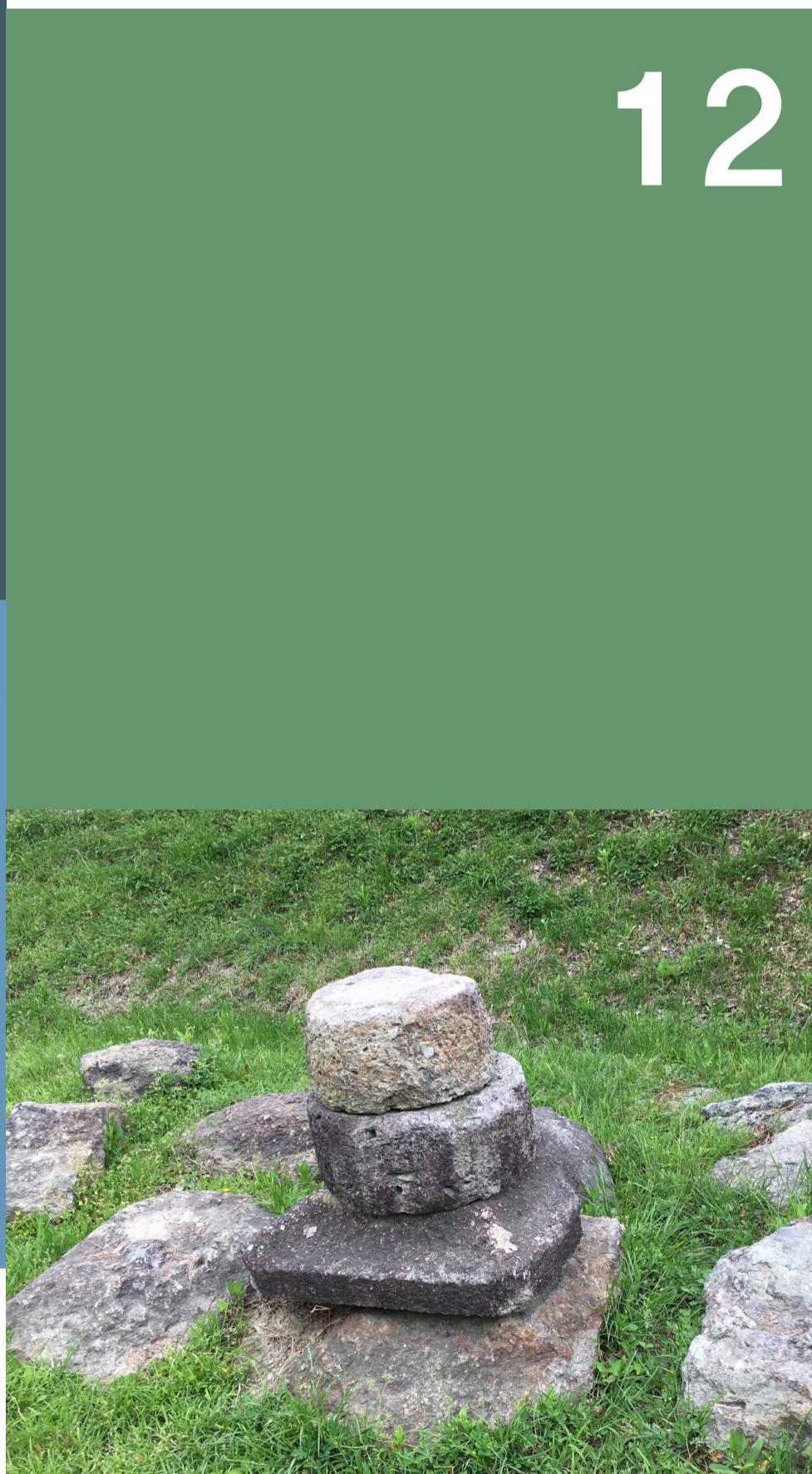
한반도 모양의 배 형상

10



영원하지 않는 돌

수백 년 세월 동안 씻긴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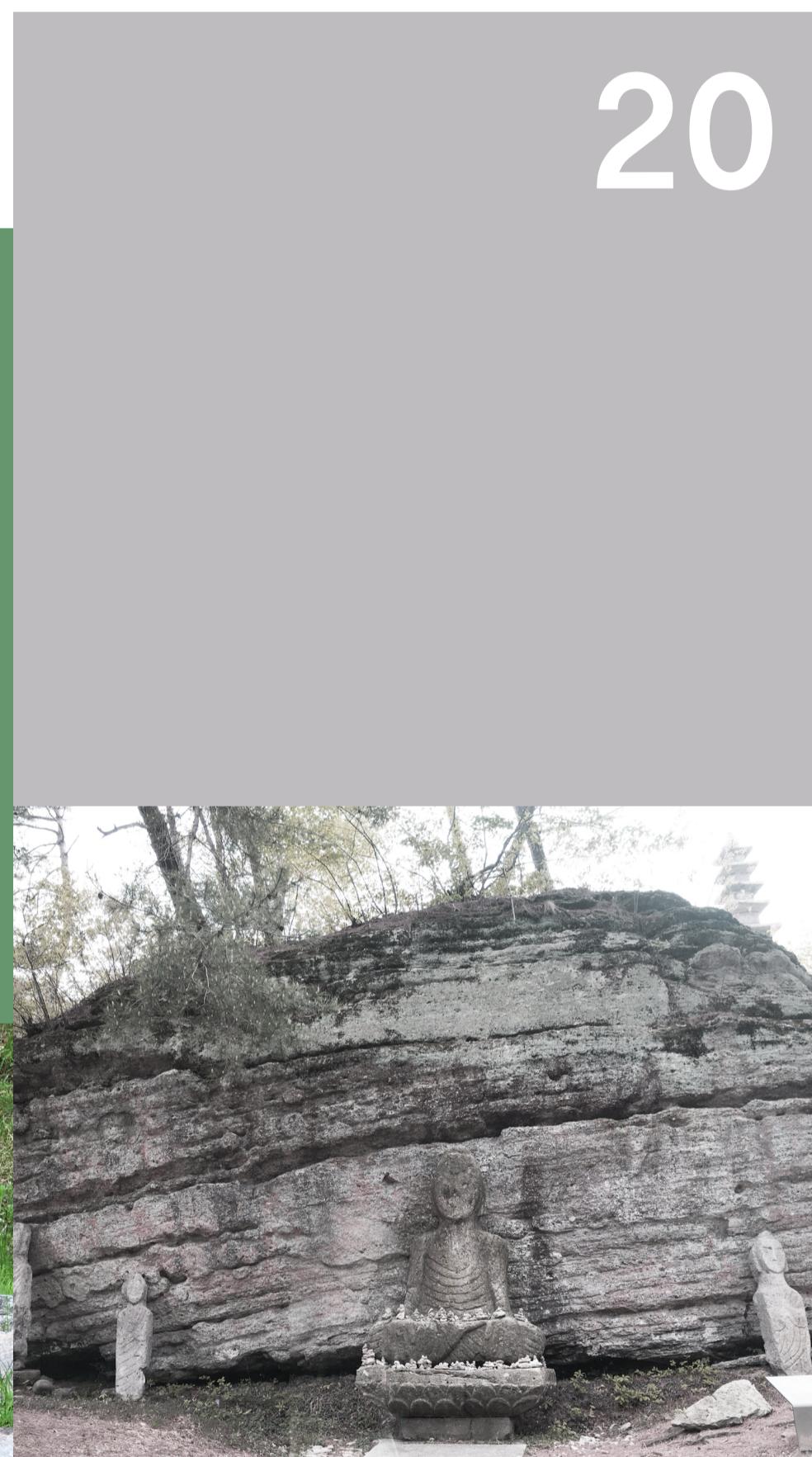


12

평범한 부처

평등한 위치의 동업중생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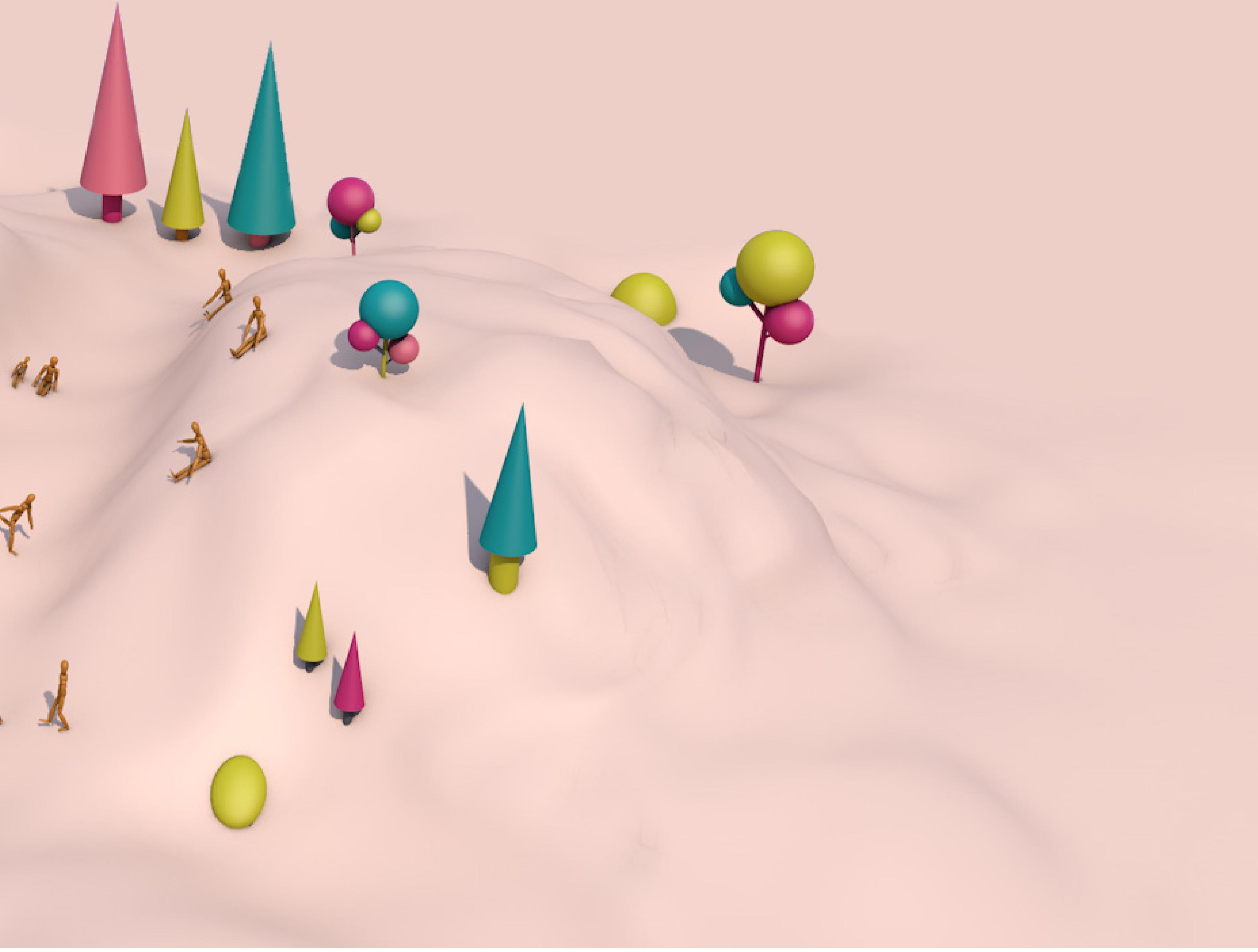


절대자를 모신 사찰이 아닌 비슷비슷한 군상들이 모여있는 공간.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이웃이 같은 친근한 불상들의 공간.
부처들은 혼자 있지않고 절벽옆에 군집되어 있는 사찰.

운주사

구름이 머무는 자리

글 여수경 이미지 여수경



사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운주사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주사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천불천탑’이다. 천불천탑. 천개의 불상과 천 개의 석탑이 있다는 전설을 가진 사찰이다. 1481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운주사는 천불산에 있으며 절 좌우 산에 석불 석탑이 각 일천 기씩 있고 두 석불이 서로 등을 대고 앉아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1942년, 석불 213좌와 석탑 30기가 있다는 기록에 이어 현재는 석탑 18기와 석불 70구만 남아있지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석조 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석탑과 석불은 두

산에 걸쳐 여러 군데에 고즈넉하니 위치해 있다. 이 천불천탑에 얹힌 전설이 많아 수수께끼가 많은 절 중 하나이다. 운주사 창건설화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설화는 천불천탑을 하룻밤 사이에 세워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한 설화이다. 도선국사의 주도하에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세우게 되면 착하고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太平)한 세상이 온다고 했다. 마지막 불상을 세우려는 순간 공사에 삶증 난 동자승이 닦이 울었다고 거짓말을 해 불상을 세우지 못하여 태평성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설이다. 마지막에 세우지 못한 불상이 오늘

날 제일 유명하고 운주사를 대표하는 불상인 ‘와불’이다. 대부분의 와불은 한 손을 괴고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운주사 와불은 똑바로 누워있는 특이한 와불이다. 우리나라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와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의 석탑과 불상 또한 특별함이 묻어있다. 석탑의 모양이나 무늬의 표현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3층 · 5층 · 7층 등 층수도 다양하다. 탑 몸돌에는 면마다 2층으로 마름모꼴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꽃무늬까지 새겨놓았다. 일반적인 사각형의 석탑뿐만 아니라 둥근 모양의 원형탑도 있다.



탑의 면이 사각형인 것은 고려 시대의 일반적인 탑들과 같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지붕들 밑면에 반침을 생략한 모습이나 각 면에 새긴 장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와 같이 운주사는 특이한 불상과 석탑이 모두 한 절 안에 있다는 점에서 천불천탑에 대한 독특한 신앙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써 우리나라 미술사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운주사에서 천불천탑 이야기

를 빼 수가 없다. 아마도 천불천탑은 말 그대로 1000개의 불상이 아닐 것이다. 불가에서 천은 가득한 수, 만의 수, 뜻을 이루는 수로 이해한다고 한다. 그래서 천불천탑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그 숫자를 나타내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태평성대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 운주사의 불상들은 크기가 각각 다르고 얼굴 모양도 각양각색이라 보는 재미가 있다. 운주



사 입구에서부터 볼 수 있는 불상들조차도 각기 다른 손 모양과 자세를 취하고 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이리저리 깎이고 깨지면서 변형되기까지도 해 불상의 특징과 매력을 하나하나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운주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투박함과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고 그 투박함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진다. 석탑과 석불이 따로 실내에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야외전시장같이 주변의 자연과 함께 어

우라진 운주사를 ‘관람’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천불산 자체가 운주사의 전시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운주사 석불과 석탑들이 인공적으로 실내 전시관에 보존이 되어있었다면 지금 운주사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과 투박한 매력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을 비바람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 조금씩 운주사만의 매력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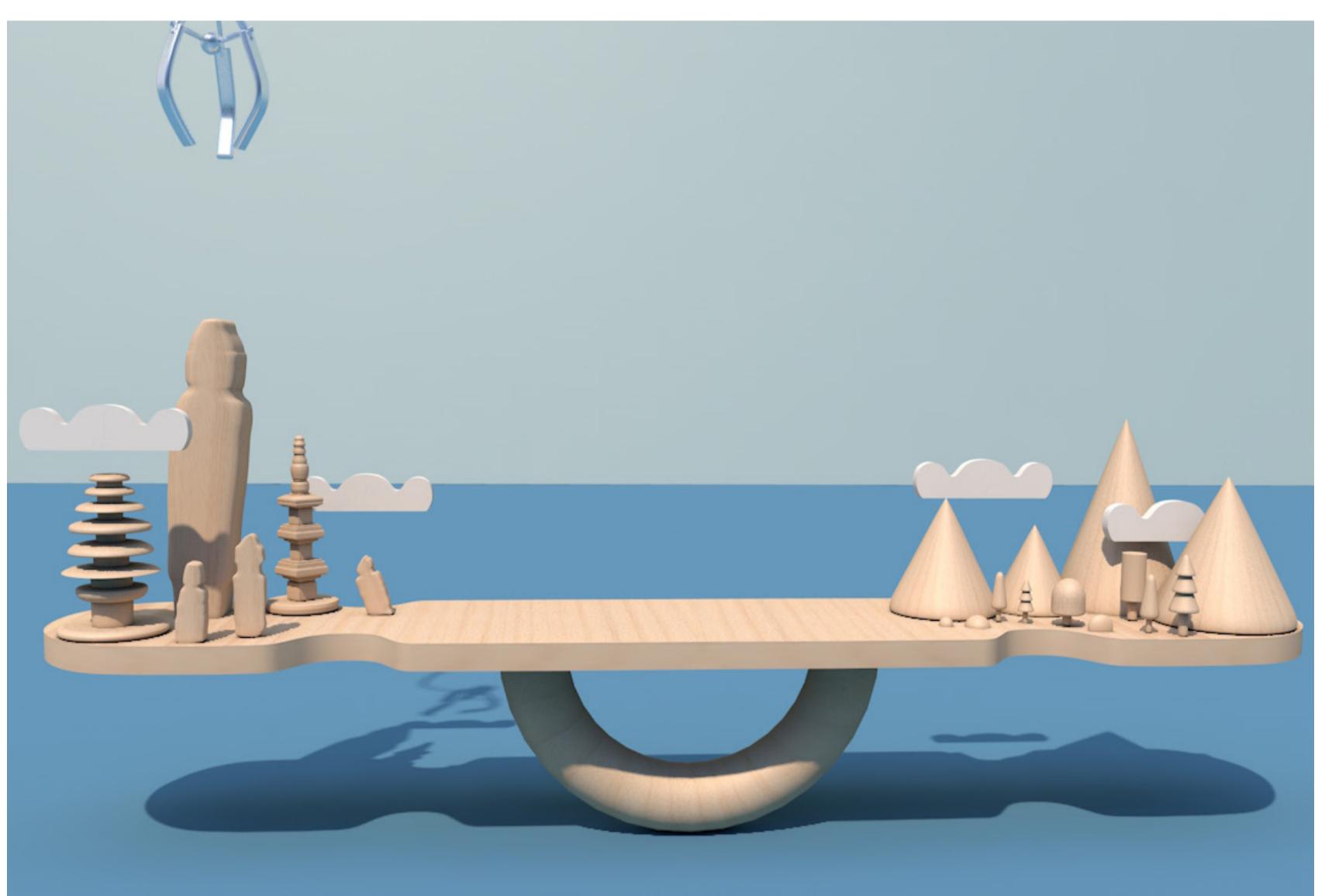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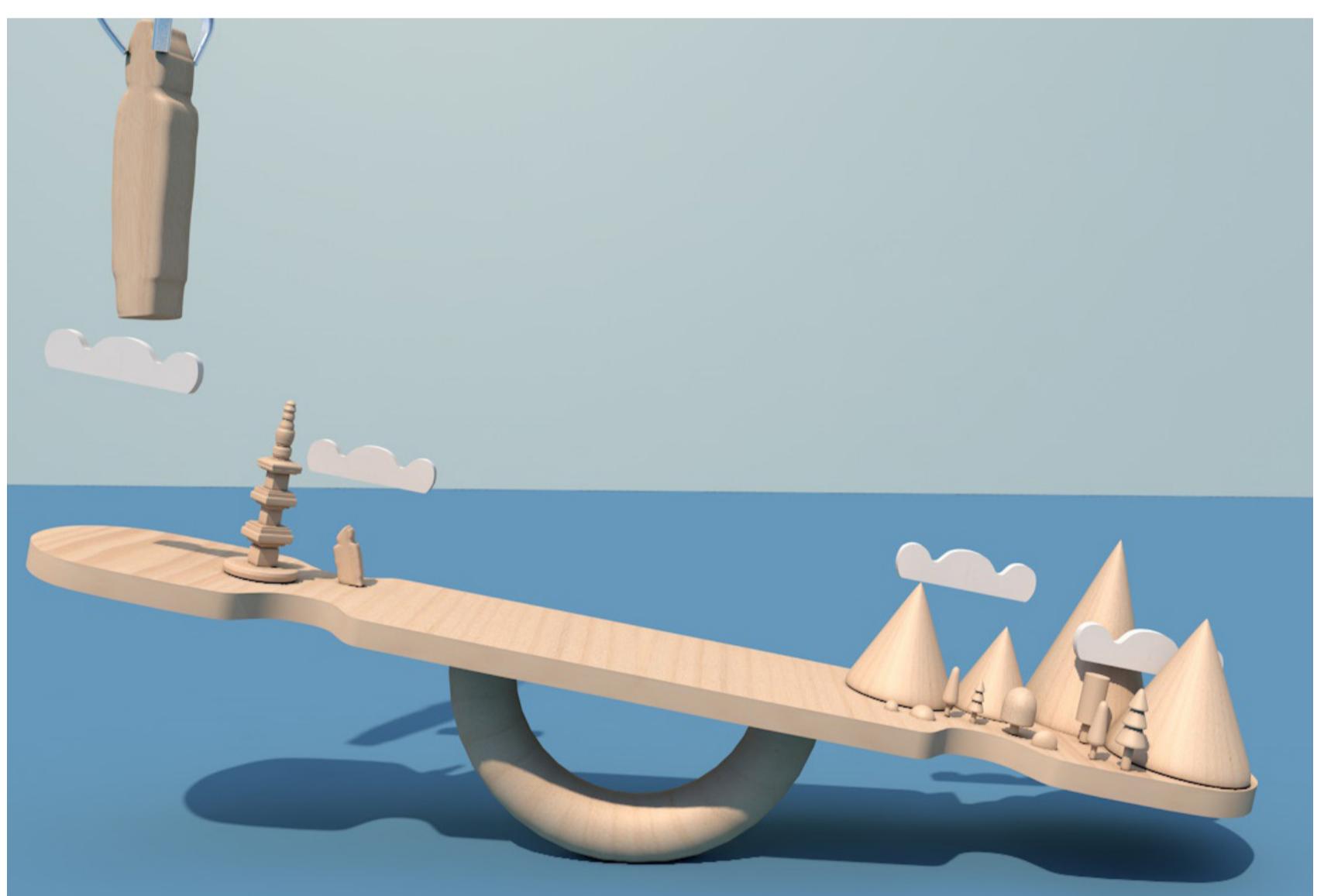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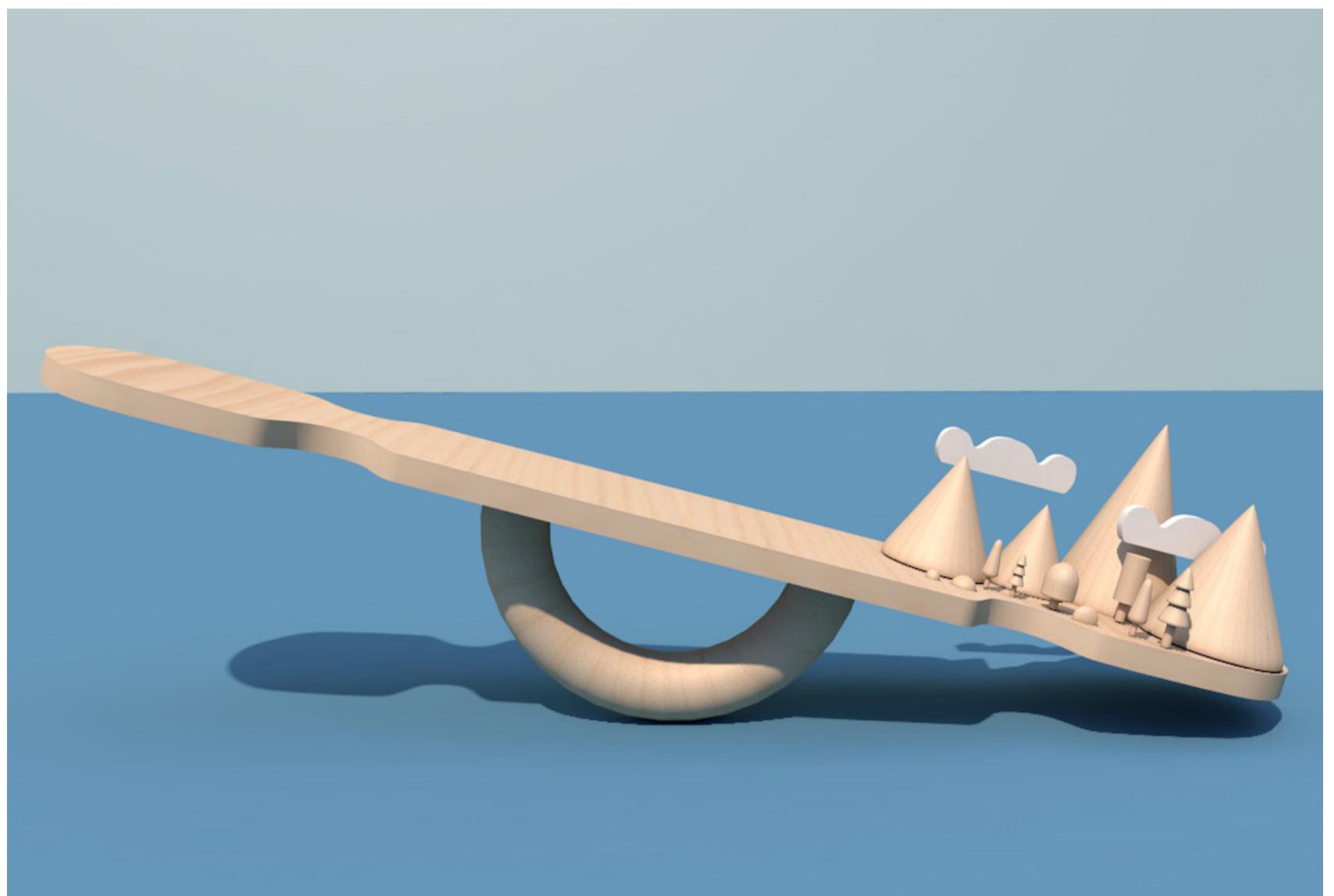
기울어진 한반도

한반도 모양의 배 형상

글 여수경 이미지 여수경

운주사(雲住寺)는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
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배를 움직인다’는
뜻의 운주사(運舟寺)로 불리기도 한다.

운주사는 여러 번의 발굴조사에도 아직 정확한 창건 시대와
창건 세력, 조성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여
여전히 신비로운 사찰로 남아있다. 인근 마을에 중국 설화에
서 전해진 선녀 마고할미의 이름을 딴 폭포와 손가락 자국, 지
팡이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마고 할머니 전설’, 신라 고
승 운주 화상이 신령스러운 거북이의 도움을 받아 창건했다는
이야기, 미래불 미륵의 혁명사상을 믿는 천민과 노비들이 모
여 세웠다는 설 등 창건 전설은 아주 많다. 이 가운데 가장 대
표적인 것이 도선국사 창건 전설이다. 도선국사는 풍수지리의
비조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로서 가장 일반화되어있는 천불천
탑이 세워지는 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설화가 도선국사
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설화 이외에 한반도를 배
의 형상으로 보고 있어 균형을 맞춰야 해 운주사를 창건했다
는 설화가 있다. 태백산맥이 있는 동쪽이 무겁고 서쪽은 가벼
워 동쪽으로 기울어지면 우리나라의 기운이 일본으로 흘러가
버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서쪽에도 무거운 것을
만들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주계곡을 지목하여 천 개의 불
상과 천 개의 석탑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도선의 창건설화
는 역사적 사실과는 어긋난다. 도선국사는 8세기에 살았던 인
물로서 그 당시 운주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설
화는 한낱 ‘설’일 뿐 역사적 근거가 없기에 그저 설화로만 받아
들여야 한다.



영원하지 않는 돌

수백 년 세월 동안 씻긴 얼굴

글 여수경 이미지 여수경

현재 운주사에 남아있는 돌부처 중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몇 백 년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중생들에게 편안함과 자비를 베풀었다. 대부분의 불상은 비바람에 씻겨 얼굴과 몸체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석탑 또한 그렇다. 총수와 모양에 상관없이 어느 한 곳은 무조건 마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우리들은 돌을 강함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속담은 힘없는 것 이 강한 것에 대항함을 비웃는 말이다. 이와 같이 돌은 강함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바위에서 자갈로, 자갈에서 모래로. 강함을 대표하는 바위도 불가피하게 마모되고 깨져 작은 것으로 변하게 된다. 아무리 강한 것도 영원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석탑은 ‘화순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 석탑’이다. 원래 몇 층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는 4층의 옥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석탑은 비바람에도 씻겼지만 어딘가에 충돌되어 깨진 것 같이 보인다.





운주사에는 제 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만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제 몸과 같이 있지만 눈, 입이 씻겨 내린 불상이 대부분이다. 분명 눈, 코, 입을 새겨 넣었겠지만 몇 백 년이 지난 오늘날엔 보이지 않는다. 몸체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조 차도 눈, 코, 입이 지워져있다.







이런 석재들을 모아놓은 석재군이 있다. 석재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 깨져 여기저기 훑어
져있던 석불의 불신, 불두와 석탑의 면석, 옥개석 등 분실될 우려가 있는 석재들을 모아두
었다. 조각나 버린 석재들을 보면 또 다른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오랜 세월 비바람과 써워온
불상들은 색이 알록달록하다. 조각했을 당시에는 이런 문양이 아니었을 테지만 지금 우리
는 여러 문양을 가지고 있는 불상을 볼 수 있다.



점과 선은 물론이고 몸체가 전체적으로 어둡게 변한 불상들이 있다. 문양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얼굴 모양과 손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진 불상도 있다. 바림을 표현한듯한 문양을 가진 뒷배경도 무자비하게 깨져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몇 백 년이 지난 오늘날 보아도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게 그저 수작업으로만 표현할 수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운주사에 있다 보면 그 시대에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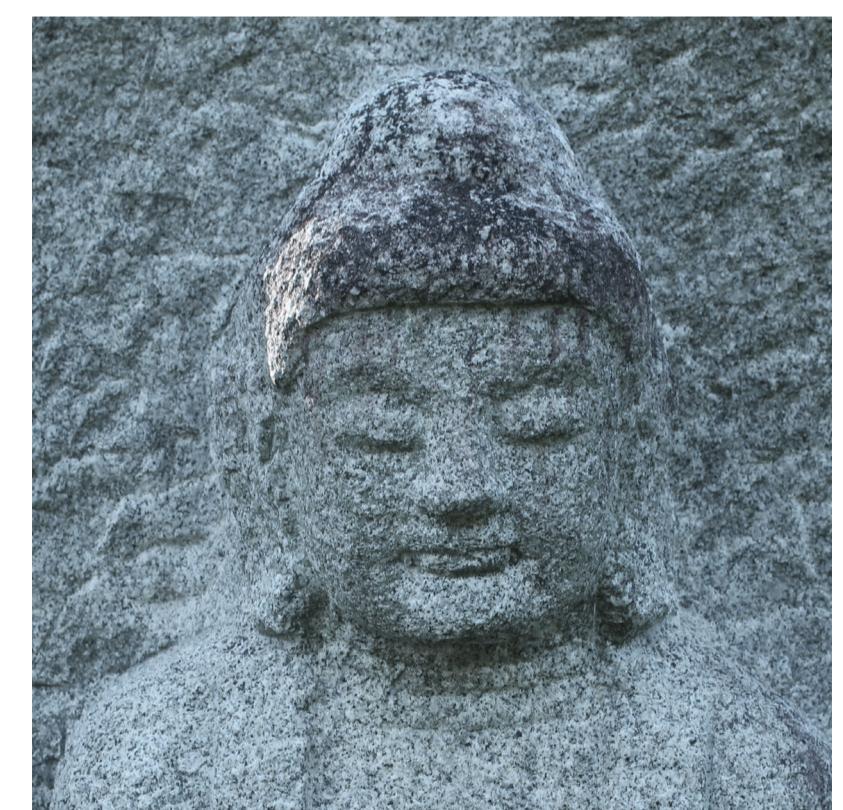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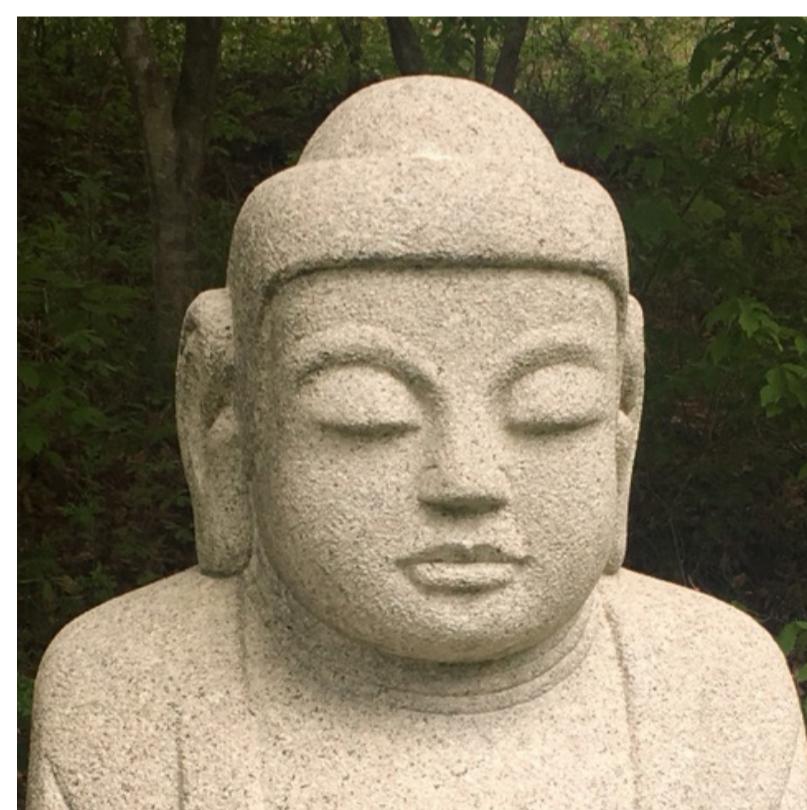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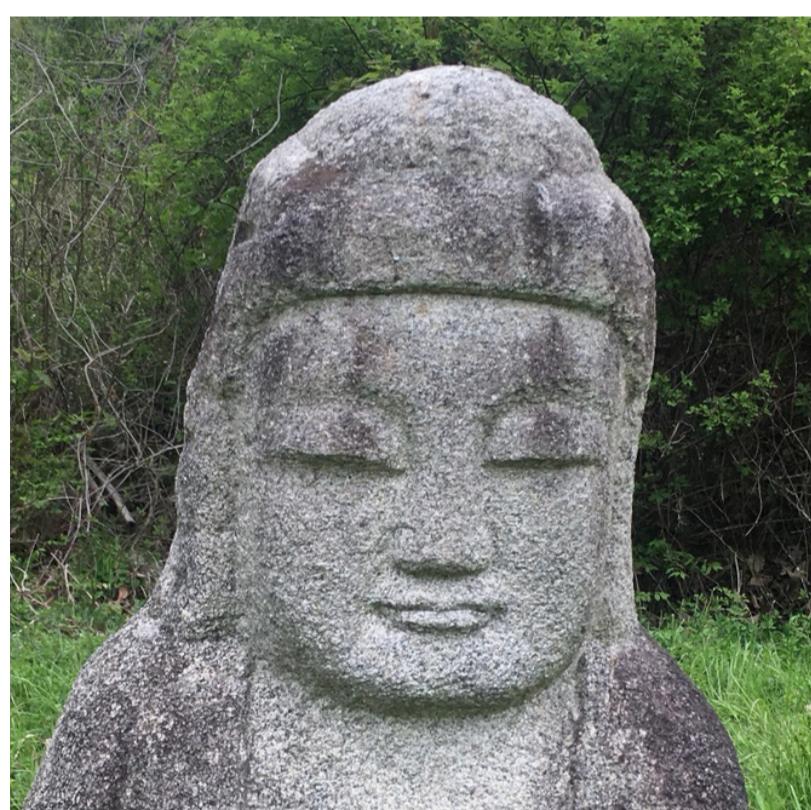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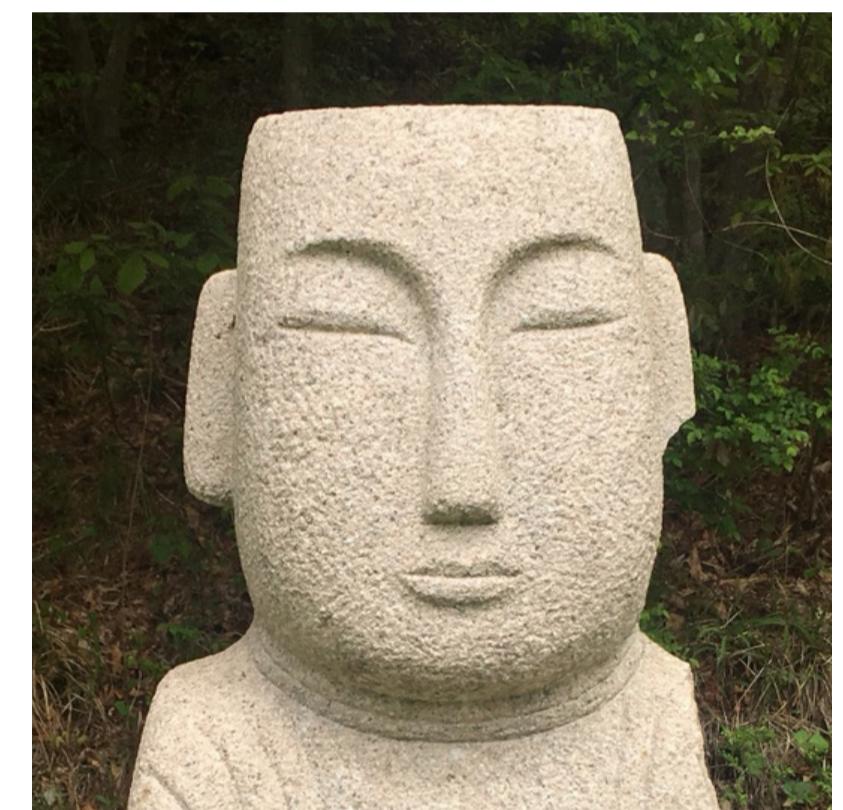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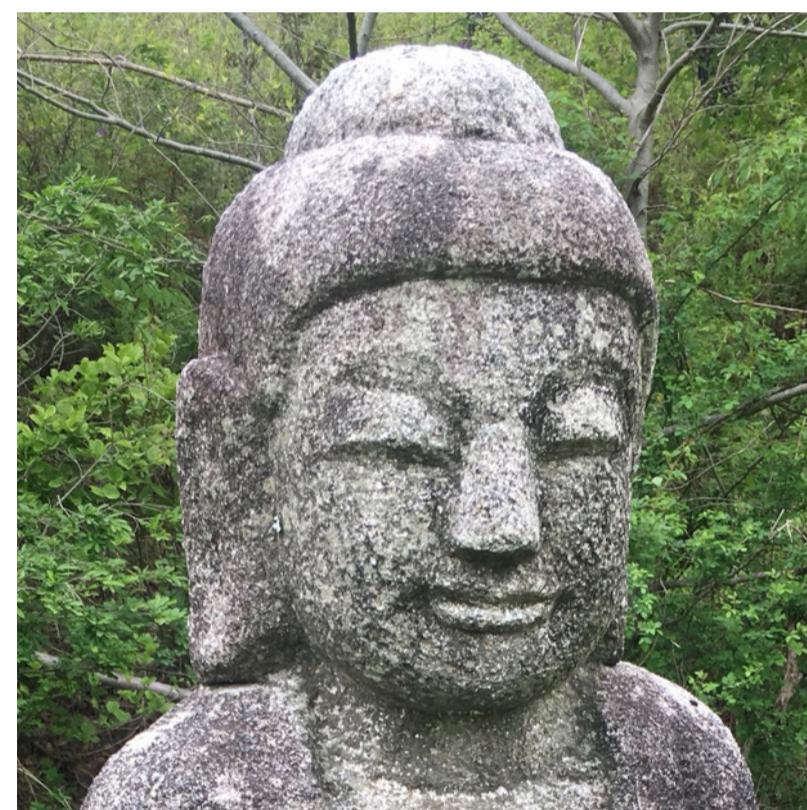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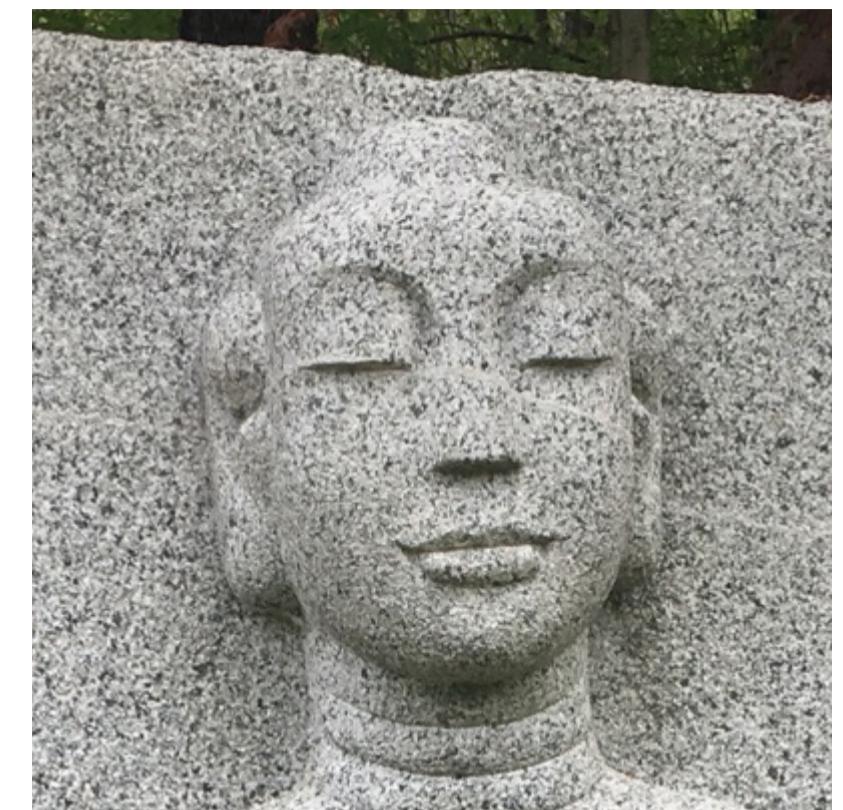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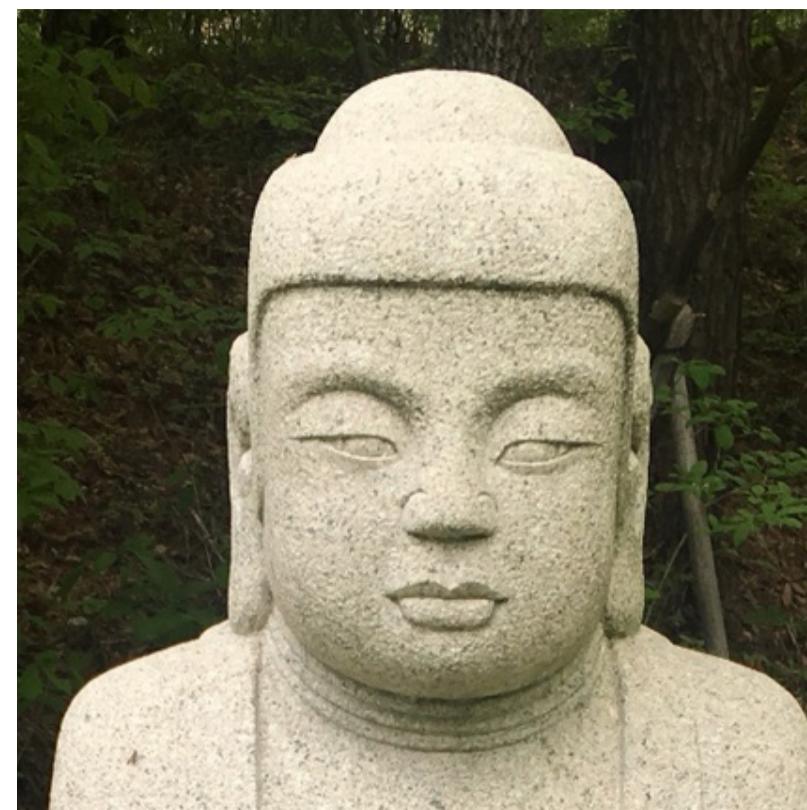
평범한 부처 평등한 위치의 동업중생

글 여수경 이미지 여수경

이곳의 불상들은 각기 다른 표정과 다른 자세를 하고 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얼굴의 군상들, 천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운주사의 불상들은 일반적인 불상이 주지 못하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불상의 얼굴을 살펴보면 눈 코 입은 깃깃하게 위치해 있다. 특별함을 느낄 수 없는 불상들을 보다 보면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돌부처를 조각한 사람들은 부처를 새긴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에 조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듈다. 보통 불상, 부처하면 기독교의 예수와 같이 성인, 거룩한 절대자로 생각이 들지만 운주사에 있는 불상들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고 누구나 평등하고 이웃과 같은 느낌이 받을 수 있다. 이곳의 돌부처는 고암적이거나 높은 곳에서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주고 평범한 이웃인 듯 같은 눈높이에 위치해있다.



불상은 자연스러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다. 꾸미지도 않고 가식도 없다. 보통 생각하는 절대자, 부처님과는 다르게
조금은 낮은 눈높이로 중생과 이야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스님의 옷, 승복을 올려놓아도 어색함 하나 없는
그런 친숙한 부처이다. 이들은 무표정으로 별 나면 별 찌고 비 오면 비 맞으며 여러 백 년을 지냈다. 언뜻 보면 같은



얼굴로 보이겠지만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눈 뼈, 코의 모양, 눈꺼풀 모양, 입술 두께, 입꼬리, 귀 모양 등 각자 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펴준다는 느낌이 들고 주변에 부처의 미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



운주사의 석불은 부처와 중생을 나누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다. 석불들은 혼자 있지 않고 크고 작은 석불들이 일곱 여덟 분씩 절벽 옆에 가족같이 무리 저 서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돌에 투영하여 보고 있는 듯하다.



발행인 겸 편집인

여수경

Publisher

YEO Sugyeong

사진작가

여수경

Photographer

YEO Sugyeong

기자

여수경

Editor

YEO Sugyeong

3D 모델러

여수경

3D Modeler

YEO Sugyeong

지도교수

명국녕

An Adviser

MYOUNG Kouknyoung

등록일 2018년 09월 28일

발행일 2018년 10월 24일

T) 010.7617.0357
E. luneyeo@naver.com

© 본지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여수경에게 있으며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hotographers, authous and modeler.
All right rese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s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cher.

운주사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지번)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20-1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T) 061.374.0660
H. <http://www.unjusa.kr>

T) 061.750.3114
H. <http://www.scnu.ac.kr/>

참고문헌

〈블로그〉

잠보의 여행사진, <https://blog.naver.com/zambo000/220763872458>
걸어서 지구별 여행, <https://blog.naver.com/spicar723/110098815424>
경영 아이디어와 여행, <https://blog.naver.com/msyeo81/221235786562>

〈언론〉

KTV 국민방송, <https://blog.naver.com/ktv520?Redirect=Log&logNo=221237591779>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132#09U0>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3,03120000,36&pageNo=5_2_1_0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9391&cid=40942&categoryId=392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8132&cid=42840&categoryId=4284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51109&cid=51953&categoryId=55414>

ABOUT



HWASUN UNJU TEMPLE

UNJUSA